

영화 포스터에 나타난 남성의 크로스 섹슈얼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 1990~2006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le Cross Sexual Fashion Style in  
Contemporary Movie Posters -Focusing on 1990~2006-**

한 지 은<sup>+</sup> · 정 성 혜

**Han, Jee-Eun<sup>+</sup> · Jung, Sung Hye**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과 교수<sup>+</sup>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sup>+</sup>

**Abstract**

The movie costume is connected with fashion industry closely and has the high value as cultural goods. Thus this study is purposed to realizes importance of costume in movie and the changes of male fashion styles, it helps for male fashion design and movie poster design in the future.

The female images have been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movie and society and the spread of feminism, but the male images have not been changed as the female images. However, this male images have been changed after 1990s, this study researched the 1st~20th movie posters in 1990~2006's every year Korean box-office record rank and selected 1990s' best 100 films the movie magazine 'KINO', etc. All of them were total 425 sheet.

This study proved that male images and fashion style have been changed after 1990s, and investigated in each quarter movie poster images and male fashion styles. And this change of male images proves change of gender and identity of male.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various male genders, and knew that the movie reflects contemporary society. Also, the movie and movie costumes influenced to contemporary fashion trend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help developing and designing male fashion style, movie costumes and movie posters in the future and to provide data for following researches.

**Key Words** : Cross Sexual, Movie Posters, Male Fashion Style

## I. 서론

2005년 개봉한 영화 ‘왕의 남자’는 전국 관객 1200만 명의 고지를 넘어서며 한국영화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세웠고, 특히 무명에 가까웠던 공길역의 이준기는 이 영화로 ‘크로스 섹슈얼’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였다. ‘왕의 남자’의 흥행 성공은 그동안 비주류 장르로 분류되던 사극을 확고한 흥행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하였고 한국영화의 비흥행 코드인 동성애 수용 폭을 넓힌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영화는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로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가치관에 없던 새로운 문화적 가치관을 탄생시키기도 한다.<sup>2)</sup> 이런 영화 속의 남성의 여성 이미지는 사회의 변화와 영화의 발달, 페미니즘의 확산과 함께 꾸준히 변화하였으나<sup>3)</sup> 그에 비해 남성 이미지는 획일적이며, 변화가 적었다. 그러나 남성 이미지가 1990년대 이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 가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으며, 김복희·남윤숙<sup>4)</sup>과 김현숙<sup>5)</sup>, 이화영·이순영<sup>6)</sup>의 연구와 같이 단일 영화의상을 주제로 한 연구와 권수현<sup>7)</sup>과 김문영<sup>8)</sup>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 여성의상을 중심으로 편중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화 포스터는 영화 홍보 마케팅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중성과 영화의 주제가 집약되어 압축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영화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때 선 연구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포스터를 현대의 영화의상의 전반적인 변화와 중요한 패션 이미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서 활용한 사례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2006년의 영화 포스터에서 나타난 남성 중심의 영화의상을 고찰하여 남성의 크로스 섹슈얼 이미지와 이에 따른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기

1) 백선기 (2007).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139.

2) 이형광 (2003). 우리시대의 문화코드, 영상예술, 신서원.

3) 백선기. op.cit. p. 216.

4) 김복희·남윤숙 (2006). 영화<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팝므 파탈 의상의 미적 특성, 한국복식학회, Vol. 56, No. 9.

5) 김현숙 (2003). 영화의상 「매트릭스2 -리로드드」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션 이미지 연구, 한국복식학회, Vol. 53, No. 7.

6) 이화영, 이순영 (2002). 역할에 따른 영화의상 분석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요 여배우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Vol. 10, No. 6.

7) 권수현 (2005). 팝므 파탈의 도상 연구 -영화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영화학회, Vol. 27, No. 1.

8) 김문영 (2002). 영화 여주인공의 의복 이미지에 나타난 전문 직업 여성의 복장 유형의 변화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 40권, 11호.

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1990~2006년 동안의 개봉된 영화들 중 연간 흥행 순위 20위까지의 영화와 영화잡지 키노의 90년대 Best Films 100에 선정된 영화, 영화제 수상작, 그 밖에 선행 연구되어진 영화 등을 포함하여 총 425편의 영화 포스터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영화 포스터 자료는 네이버영화,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와 씨네21, 씨네통, 필름2.0 등의 영화전문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이론적 고찰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의 전문서적들과 선행연구논문을 통한 문헌적 고찰과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한 영화의상, 변화된 남성애 관한 기사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연구기간의 분류는 영화 포스터에 나타난 남성 패션과 젠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의 큰 행사나 이슈가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4분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988년 올림픽 개최이후 서양 문화가 대거 유입되면서 영향을 준 1990년대 초를 1990~1993년 1분기로, 1990년대 중반 IMF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1994~1997년을 2분기로, IMF직후부터 세기말 현상이 진행된 우울한 기류의 불안정한 시기를 1998~2001년으로 3분기로 보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와 다시 밝아진 사회 분위기와 남성들의 외적인 변화가 확인한 2002~2006년을 4분기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

예로부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들을 드랙 퀸(Drag Queen),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 트랜스베스타이트(transvestite), 트랜스젠더(Transgender),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등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불리었다. 하지만 크로스 섹슈얼은 영어에서 'Cross' 교차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크로스 섹슈얼의 해석상 의미는 교차하는 성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이는 남성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2006년에 등장한 신조어로 단순한 외모 가꾸기를 넘어 여성들의 액세서리는 물론 의상이나 머리스타일, 화장까지 차용하여 자신을 꾸미는 남성들의 스타일을 말한다.

패션전문가 오제형(제이컴퍼니 대표) 씨는 “몸에 딱 달라붙는 스킨니 팬츠, 칼로 머리숱을 많이 치면서 머리끝에 층을 내는 스타일, 화려한 액세서리 등 1970, 80년대 유행했던 글램룩 스타일이 현대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sup>9)</sup> 또한 이런 현상을 문화평론가 이동연 씨는 “남성들의 양성 이미지 추구는 빈부 양극화, 청년 실업 등 현실적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불안감이

9) 김범석, 김윤중 (2006.01.07). 외모만 여성스럽게 크로스 섹슈얼이 뜬다. www.donga.com 2007년 11월 14일 검색.

기성사회, 기성세대에 대한 반작용과 합쳐져 표출되는 것”이라며 “불황으로 인한 불안감을 보상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스타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sup>10)</sup> 정진웅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광고에서 남성의 신체도 성적인 응시와 욕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였고,<sup>11)</sup> 이런 크로스 섹슈얼의 등장은 부드러운 남성을 원하는 사회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와 같은 크로스 섹슈얼의 등장 배경으로는 우선 가치관의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고 있고 그동안 남성에게서 박탈당하였던 여성스러움을 드러냄으로써 내면적 본질을 찾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성의 여성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숙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는 흐름이다. 또한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루키즘(Lookism)과의 연관성을 보이며, 그동안 외모와 관련되어 유행하였던 몸짱, 얼짱, 메트로 섹슈얼, 워머 섹슈얼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보았을 때 크로스 섹슈얼은 다른 나라들과는 구분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용어로 보여지며 그동안 억압받던 남성의 여성성 표출과 함께 남성의 감성이 요구되어지는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크로스 섹슈얼은 두 가지의 젠더로 나타나는데, 남성의 여성성의 정도에 따라 여성성과 양성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1) 영화에 나타난 남성의 여성성

'90년대 영화에서 남성은 주로 드랙 퀴의 트랜스베스티즘으로 주로 표현되었다. 트랜스베스티즘이란 라틴어의 trans와 clothe를 뜻하는 vestire의 합성어로 반대되는 성의 의복을 채택하고 자주 이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sup>12)</sup> 인류학적으로 볼 때 주술이나 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Peter Ackroyd는 트랜스베스티즘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샤머니즘적 문화에서 트랜스베스티타이트(transvestites)는 남자가 여자처럼 옷을 입음으로서 생기는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신성한 권위의 원천인 마술사나 공상가로써 간주되어지며, 이 이중성은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신의 앤드로지너스적인 성질을 생각해 볼 때 신성함의 표시로써 보여진다고 말한다.<sup>13)</sup> 이런 사실로 볼 때 트랜스베스티즘은 과거 양성성의 젠더로 나타났으나 현재 영화에서는 남성의 여성성 젠더를 나타내고 있다. 이케가와 슌이치는 자신의 책 <마녀와 성녀>에서 현대의 트랜스베스티즘은 흔히 여장을 하고 싶은 남자의 욕망으로 해석되며, 거세는 하

10) Ibid.

11) 김선우, 신선미 (2007.08.25). 내남자도 '최한결 처럼'. www.donga.com 2007년 11월 23일 검색.

12) Webster's New Colligate Dictionary (1973). Springfield, Massachusetts, U.S.A : G.&C. Merriam Company, p. 1243.

13) Elizabeth Wilson (1985).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p. 121~122.

지 않지만, 의상이나 화장, 말투, 행동을 가능한 여성같이 바꾸는 것으로 극도의 나르시시즘이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런 트랜스베스티즘에서 보이는 패션은 남성의 여장으로 나타난다. 과거 가부장제도의 강화는 남성과 상대적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치마를 입혀, 두 다리로 직립함을 은폐한 채, 자연에 머무르게 하였고,<sup>14)</sup> 이에 따라 패션에서의 여성성은 치마로 정의 되었다. 따라서 영화로 나타난 여성성의 젠더를 가진 남성의 대표적 스타일은 여성의 치마를 입은 스타일로, 근세 이후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긴 머리와 진한 화장 등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성성을 대표하는 꽃무늬와 페이즐리무늬, 프릴, 레이스, 러플, 자수 등의 장식과 코르사주,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의 액세서리, 그리고 실크, 벨벳 등의 광택 소재는 영화 포스터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남성의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 2) 영화에 나타난 남성의 양성성

일반적으로 양성성은 정신적인 면에서 중요시되지만 이러한 관념은 복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sup>15)</sup> 패션에서의 양성성의 용어는 19세기에 나타났는데 “앤드로진이라 단어가 잘못하여 몇 부린 옷을 입은 무능력하게 된 젊은 남자 또는 보이쉬한 외관을 가진 여자들에게 적용되었다.”<sup>16)</sup>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메트로 섹슈얼로 대변되는 남성들은 19세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영국의 영화 비평가 마크 심프슨(Mark Simpson)에 의해 처음 등장한 메트로 섹슈얼은 남성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성적 취향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에 사는 경제력 있는 남성을 의미한다. 이런 메트로 섹슈얼의 양성적 표현은 예쁜 얼굴에 운동으로 단련한 탄탄한 몸 등으로 보이며, 남성의 패션에서 여성성을 대표하였던 꽃무늬나 슬림 앤 피트라인, 길게 파인 넥 라인 등이 남성의 패션에 접목되어진 여성화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라는 것이 양성성이다.<sup>17)</sup> 이는 남성의 여성성과는 구분되어지는 항목이다.

양성성의 대표적 패션경향인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남·녀 구별 없이 신체특성에 꼭 맞는 라인이 특징적이며 팔찌, 귀걸이, 넥타이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원색계열의 화려한 색상의 광택이 있는 복식을 주로 착용하여 표현한다.<sup>18)</sup> 옷의 무늬

14) 이민선 (2001). 가부장제도,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한국의류학회지, Vol. 25, No. 2, p. 279.

15)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월호, p. 241.

16) June Singer(1976).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p. 32.

17) 「Hi-Fashion」, 1984년 10월호, p. 209.

는 주로 화려하고 대담한 무늬가 많으며 헤어스타일은 남성은 긴 머리, 여성은 짧은 머리로 화장을 하여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라도 다른 여성화경향이 있는 것을 양성성으로 보았다. 이런 앤드로지너스 룩은 1920년대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의 패션이 양성적인 여성이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소년들에게서 양성성을 볼 수 있다<sup>19)</sup>고 패션 역사가인 James Laver는 말한다.

이런 앤드로지너스 룩은 룩 스타들에 의해 꽃피우게 되는데, 여성적 얼굴과 헤어스타일, 의복 등에서 남성과 여성, 젊음과 늙음, 인종의 경계까지 허물고 있으며,<sup>20)</sup> 현대 모드의 다양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 2. 영화 포스터와 영화 의상

영화 광고는 그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이 집약된 집합체이고, 그 중 영화 포스터는 영화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 영화에 대한 대중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 상영될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를 표현하는 기능, 상영될 영화의 개봉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알려 대중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sup>21)</sup> 이런 기능을 가지는 영화 포스터는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광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시각적 명쾌함으로 포스터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고, 영화의 계획된 의도가 대중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단시간 내 대중에게 어필해야하고, 주제를 독특하고 강렬하게 시각화하여 대중을 설득하여야하며, 시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함께 융합해야하는 특성을 가진다.<sup>22)</sup>

백선기<sup>23)</sup>에 따르면 한 설문 조사에서 영화 선택 시 영화 광고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영화 광고에 대한 집중도에서는 TV광고는 39.7%, 영화 포스터는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관객은 영화 포스터에서 주요사진, 그림, 카피의 순으로 집중도를 보였으며, 영화 포스터를 보고 가장 나중까지 기억에 남는 구성요소는 주요 사진과 그림(41.3%)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18) 최나리 (2006).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 56~58.

19) Charlotte Mankey Calasibetta(1988).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 343.

20) 이현구 (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p. 35~36.

21) 이효일 (1983). 영화포스터 반세기, 계간미술 통권 26권, 중앙일보, p. 134~135.

22) 황지영, 장순석 (2001). 국내 영화포스터의 디자인 현황 및 표현기법 분석에 관한 연구, 시각디자인학연구, Vol. 8, No. 0, p. 34.

23) 백선기 op. cit., p. 216.

이처럼 영화 포스터는 영화 홍보 마케팅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의 광고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런 특성에 따라 영화 포스터는 대중성과 영화의 주제가 집약되어 압축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영화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때 선 연구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영화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 지금, 디지털 기술은 영화제작에 있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상현실의 효과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리게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영화는 아날로그적 방식의 도움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런 아날로그적 노동의 대표 격이 바로 영화의상이다.<sup>25)</sup> 이런 영화의상은 영화에서 보이는 복식을 좀 더 특화하여 보는 시점으로 사용된다. 영화가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영화의상은 유행을 선도하게 되는데 현재를 시대적 배경으로 갖는 영화에는 당연히 현재의 유행이 반영되기 마련이나, 역사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한 과거이고, 미래 역시 현재를 기초로 상상되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도 우리는 현재성을 읽을 수 있다.<sup>26)</sup>

영화사를 돌아보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패션이 실제로 유행하게 된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들면, 길버트 아드리안(Gilbert Adrian)이 영화 'Letty Lynton(1932년)' 조안 크로포드(Joan Crawford)를 위해 디자인한 퍼프소매의 러플 드레스의 복제품이 Macy's 백화점 한곳에서만 50만 장이 팔리기도 하였고,<sup>27)</sup> 영화 '이유없는 반항(1955년)'에서 제임스 딘(James Dean)이 보여준 Jean 스타일은 당시 카우보이의 작업복으로만 인식되던 Jean에 '청춘'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인 패션아이템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갔으며, 1950년대의 중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청바지 문화를 이루게 하였다.<sup>28)</sup>

하지만 국내에서 영화의상이란 많은 영화에서 의상 디자인과 제작에 예산을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의상담당자는 영화의상 디자이너이기보다는 코디네이터의 개념이 더 강하다.<sup>29)</sup> 이런 국내의 문제가 점차 영화의상과 영화의상 디자이너의 위상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신문기사나 잡지 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구호와 박윤정 등의 디자이너들이 영화의상을 담당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면서 영화에서 의상의 비중이 커지고, 대중 패션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현대의 영화 포스터 속에서 영화의상으로 표현된 남성 이미

24) 황지영 (2001).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한국영화포스터 디자인의 표현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pp. 39~44.

25) <http://blog.naver.com/lenyjo?Redirect=Log&logNo=110017373376>

26) 남후선, 김순영 (2005). 영화로 보는 복식사, 서울, 경춘사.

27) Gini Stephens Frings (1982).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 18.

28) 이경기 (1994).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주제와 장르로 살펴본 영화 세계, 서울, 삼호미디어, p. 105.

29) 남후선, 김순영 (2005). 앞의 책.

지를 남성 젠더의 정체성에 의해 분류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하여 영화의상이 대중 패션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자하며, 분류된 남성 이미지를 표현하는 영화의상에 나타난 구체적인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여 미래의 남성패션연구와 영화의상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 III. 영화 포스터에 나타난 남성이미지 변화

#### 1. 남성 이미지 분류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1990~2006년까지의 17년 동안의 각 연도별 흥행 순위 20까지의 영화 포스터와 영화잡지 키노 선정 90년대 Best Films 100에 선정된 영화, 영화제 수상작, 그 밖에 선행 연구된 영화 등을 포함하여 총 425편의 영화 포스터를 젠더의 분류에 따라 남성의 남성성과 여성성, 양성성과 중성성으로 분류하였고,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영화 포스터; 여성만 등장하는 영화 포스터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 포스터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기간 분류는 4분기, 1990~1993년-1분기, 1994~1997년-2분기, 1998~2001년-3분기, 2002~2006년-4분기로 나누어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초점이 되는 남성의 여성성으로 나타난 영화 포스터는 영화내용을 중심으로 크로스드레싱의 역할로 분류하였다. 트랜스베스티즘은 먼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유희로 일탈적인 이미지와 동성애자의 이분법적 성 구분에 의한 드랙(drag) 현상을 다루며, 이를 서양의 드랙과 동양의 드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성성의 이미지는 고증복식으로 보이는 회귀적 이미지와 상상의 세계·창조된 세계관의 환상적 이미지 그리고 현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남성의 성향에 따른 여성화경향을 페미닌 이미지로 구분하여 변화를 보았다.

예를 들면, 회귀적 이미지는 아이언 마스크(1998년)나 셰익스피어 인 러브(1999년) 등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영화에서 보이는 남성의 양성적 이미지를 말하고, 환상적 이미지는 반지의 제왕(2001년)의 판타지 영화와 스타워즈 3(2005년)와 같은 SF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은 실존하지 않는 요정이나 외계인 등 다른 종족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페미닌 이미지는 로미오와 줄리엣(1996년), 그 늬은 멋있었다(2004년)에서 보이는 것 같은 꽃미남 이미지로 여성의 것으로 대변되는 이미지를 남성 이미지와 조화롭게 사용한 모습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영화 포스터의 이미지 분류는 다음 <표 1>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 <표 2>는 <표 1>의 결과 중 기타를 제외한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분기별 같은 수의 영화 포스터를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 변화보다는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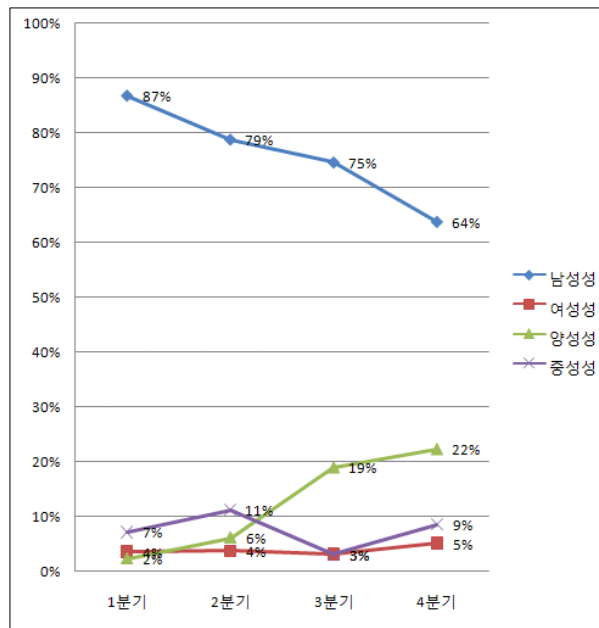


<표 1> 분기별 영화 포스터 유형 (총 425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남성성	72	63	51	73
여성성	3	3	2	6
양성성	2	5	13	26
중성성	6	9	2	11
기타	20	21	23	14
합 계	103	101	91	130

<표 2>의 분기별 영화 포스터의 남성 이미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1~4분기 동안 남성성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성의 이미지는 1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양성성의 이미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난 여성성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성의 크로스 드레싱을 일반적이지 않는 일탈적 모습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지만, 이들도 4분기에서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중성성의 이미지는 거의 같은 비율로 등장하였다.

<표 2> 분기별 영화포스터의 남성 이미지 변화 추이



최종적으로 현재의 상태인 4분기의 상태인 남성의 여성성, 양성성, 중성성의 증가와 남성성 이미지의 감소는 보수적이고 획일적이던 남성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유연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표 2>의 변화로 보았을 때 영화 포스터에서 지속적인 남성성의 감소와 양성성의 증가는 남성의 여성화 경향을 시사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남성의 이미지와 패션이 그들만의 아름다움의 신화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보이기 위한 새로운 응시 대상으로의 남성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 2. 남성의 여성성 이미지

남성의 여성성 이미지는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주로 유희와 일탈로 그려지던 여성성이 2분기에서부터 젠더로 인식되어짐을 볼 수 있었다.

1분기에는 쾌락주의에 영향을 받은 코믹한 이미지의 유희로서 등장한 남성의 크로스 드레싱과 다문화주의로 보이는 중국의 경극분장으로 인한 크로스 드레싱이 나타났다. 이어 2분기에는 1분기에 나타났던 유희로서의 크로스 드레싱과 다문화주의의 크로스 드레싱뿐만 아니라 에코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서양의 드랙이 나타났으나, 이들은 성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기괴한 느낌을 자아냈으며, 이런 현상은 3분기까지 지속되었다. 4분기에는 한국 영화의 강세로 인해 유행된 사극 열풍으로 트렌디 레트로 사극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젠더의 남성상이 등장하였다. 이에 여성성 이미지로 나타난 왕의 남자(2005년)의 이준기는 한국적 드랙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국내에서의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4분기에는 그동안 보여 줬던 유희와 일탈로 인한 크로스드레싱의 이미지가 나타났으며, 서양의 드랙 현상과 개인의 젠더가 세분화되면서 2~3분기에 보여 줬던 기괴한 여장인 아닌 다소 소박해지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화 하였다.

모든 분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서양의 크로스 드레싱에 비해 동양의 크로스 드레싱은 단 3편 이었고, 그 중 한국의 경우 크로스 드레싱의 이미지가 단 1편뿐이었다. 또한 1990년대 보이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는 모두 외국의 영화였고, 이들 또한 깊은 우정으로 영화 평론가들에게 잘못 평가되어지면서 동성애의 인식이 왜곡되어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에코페미니즘으로 인하여 동성애가 열등하고 나쁜 것이 아닌 차이일 뿐이고, 개인의 성향으로 인정되면서 국내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메이저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2000년)에서 왕의 남자(2005년)까지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저속한 문화로 취급되었던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경향으로까지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여성성 이미지는 가장 적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지만 4분기에서는 국내에서의 동성애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수의 패드현상으로 보인다.

## 3. 남성의 양성성 이미지

남성의 양성성 이미지는 1분기에서 동성애자들의 패션으로 나타났다. 아이다호(1991년)등의 영화에서 나타나던 동성애자의 화려한 무늬의 셔츠와 액세서리가 2분기에서는 비로소 일반

남성의 패션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2분기에서는 화려한 꽃무늬 셔츠가 나타나 1분기의 동성애자들의 패션과 흡사해 보이나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듯이 여성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런 남성의 양성성 이미지는 3분기에는 세기말의 암울한 시대 기류와 만나 과거로 돌아가 고픈 소망을 회귀적 이미지로 나타냈다. 이시기의 남성의 양성성 이미지는 회귀적으로 주로 서구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로맨티시즘의 패션 경향에 영향을 주었다.

4분기에는 다시 밝아진 사회 기류와 함께 판타지 장르의 문학과 인터넷 소설의 영향으로 환상적 이미지와 에코 페미니즘으로 인한 강해진 여성의 이미지와 함께 반대로 남성의 인간적이고 유약한 모습이 페미닌 이미지로 메트로 섹슈얼 패션과 함께 나타났다.

메트로 섹슈얼은 2~3분기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멋을 내는 남성은 동성애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남성도 가꾸는 것이 미덕인 시기로서 메트로 섹슈얼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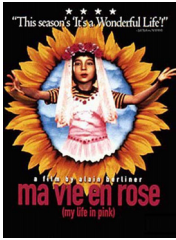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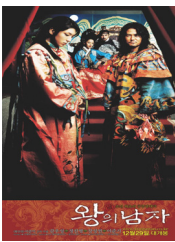
## IV. 영화 포스터에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 이미지에 따른 패션 스타일

### 1. 남성의 여성성 스타일

1분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유희로 수녀복을 입은 남성<그림 1>과 화장을 하고 있는 남성<그림 5>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분기에서는 서양의 드랙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희와 일탈로 인한 크로스 드레싱마저 여성성을 배제한 수녀복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타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동양의 드랙은 <그림 5>처럼 여성성을 과도하게 나타내기 위해, 색기 흐르는 진한 화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실 경극을 위한 무대 분장으로, 하얀 얼굴과 붉은색 아이새도우가 인상적이다.

2분기의 크로스 드레싱은 유희와 일탈이 동양의 드랙, 서양의 드랙 모두에서 공존하는 시기였다. 유희와 일탈로 보여진 <그림 2>의 노부인 복장을 한 남성 의복은 하얀색 블라우스와 푸른색의 무늬가 있는 니트로 보여진다. 동양의 드랙은 1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극의 경극 분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의 화장하는 모습이 아닌 의상을 모두 갖춘 완성된 모습으로 화려한 머리장식 관과 전통의복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서양의 드랙은 마치 카니발을 하는 듯 과장된 의상이 공작 깃털과 다른 커다란 깃털을 가지고 모자를 장식하고 있으며,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와 튀튀처럼 뽀얀 깃털로 장식된 미니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팔목까지 오는 긴 장갑을 끼고 있다. 또한 금색의 장신구를 등 뒤에 늘어뜨리고, 두꺼운 금색 팔찌를

<표 3> 트랜스베스티즘 영화 포스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희 & 일탈			
 <p>&lt;그림 1&gt; 돈가방을 든 수녀(1990)</p>	 <p>&lt;그림 2&gt; 미세스 닷파이어(1994)</p>	 <p>&lt;그림 3&gt; 나의 장밋빛 인생(1998)</p>	 <p>&lt;그림 4&gt; 화이트 칙스(2004)</p>
동·서양의 드랙			
 <p>&lt;그림 5&gt; 패왕별희(1993)</p>	 <p>&lt;그림 6&gt; 투 월 후(1995)</p>	 <p>&lt;그림 7&gt; 헤드윅 (2000)</p>	 <p>&lt;그림 8&gt; 왕의 남자(2005)</p>

착용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6>에서는 광택 있는 소재의 재킷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 노란색의 가슴에 나비매듭이 있는 원피스로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도 팔목까지 오는 붉은 색의 긴 장갑과 레이스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이들은 화려한 귀걸이와 팔찌,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여성보다 더 화려한 여성의상으로 분장을 한 모습이다.

3분기는 동양의 드랙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탈과 유희로의 모습과 서양의 드랙만이 존재하였다. <그림 3>와 같이 유희와 일탈의 모습은 남자 아이가 화관을 쓰고 분홍색 베일을 드리우고 노란색의 스트라이프 셔츠 위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서양의 드랙은 <그림 7>과 같이 의복은 볼 수 없었고 드랙의 과도한 화장을 볼 수 있었다. 화려한 금발과 펄이 번쩍이는 파란색 아이섀도우와 지나치게 붙인 인공 속눈썹, 그리고 반짝이는 새빨간 립스틱은 여성성을 진하게 나타내지만 아름답기보다는 기괴한 느낌이다. 빛나는 목걸이와 구슬로 장식된 검은색 팔 토시가 등장하고 있다.

4분기에는 유희와 일탈의 모습과, 동·서양의 드랙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1~3분기 동안 여성성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태의 유희와 일탈이 <그림 4>과 같이 화려한 금발미인으로

로 변하게 되면서 의복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하였다. 여성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미니스커트와 재킷과 하이힐이 등장하였고 여전히 붉은 입술의 화장과 긴 금발머리가 보여 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양의 드랙에서도 보여 지고 있으며, 2~3분기동안 과장되어 기괴하였던 모습이 연보라색 롱 원피스와 분홍색 앞치마를 하고 가지런히 묶은 긴 머리로 소박해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드랙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으로의 트랜스베스티즘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과거 달린 코트 깃에 뱀피 무늬 롱코트와 검정색 기지바지에 분홍색 하이힐과 한손에는 핫 핑크의 우산을 들고 한손에는 검정 꽃무늬의 레몬색 가방을 든 모습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4분기의 동양의 드랙은 처음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 분홍색의 긴 장포형식의 의복은 소매 끝과 허리에 파란색의 띠를 두르고 무늬가 새겨져 있고 목깃에는 구슬장식이 대롱거린다. 긴 생머리를 반으로 묶어 가지런히 정리한 헤어스타일과 두 손을 모으고 옆으로 비켜선 모습은 더욱 여성성을 부각시킨다. 여성으로 오인 할 정도로 자연스런 여성성이 묻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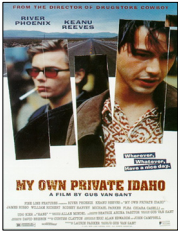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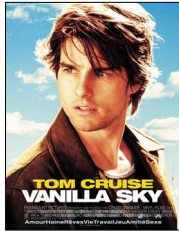





## 2. 남성의 양성성 스타일

1분기의 양성성 스타일은 2%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시기의 양성성 스타일은 동성애자로 표현되었고 그들은 화려한 무늬의 남방을 입고 재킷을 걸치고 있으며, 붉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눈까지 오는 앞머리를 뒤로 넘기지 않은 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밖에는 남성이 작은 링 귀걸이를 한 모습 등이 관찰되었다.

2분기에서는 비로서 진정한 의미의 메트로 섹슈얼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것이었던 꽃무늬가 남성의 셔츠에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식물 모티브와 하와이안 셔츠 등이 등장하였고, 셔츠의 색은 파란색에 한정되었다. 그밖에도 푸른 벨벳 정장과 레이스 소매의 드레스 셔츠, 레이스 크라프트로 치장된 오스틴 파워(1997년)에서 양성성의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또 여전히 동성애자의 패션으로 앙골라 털의 터틀넥 니트 등이 보여 지기도 하였다. <그림 10>

3분기에서 시대의 암울한 기류와 함께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회귀적 메트로 섹슈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동경과 함께 환상적 메트로 섹슈얼이 함께 등장한다. 이는 90년대 후반부터 패션에서 복고풍과 사이버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를 이끄는 큰 패션의 주요한 코드였던 것과 일치하여 영화의상도 이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이언 마스크(1998년)에서는 리본으로 장식된 붉은색 상의와 레이스 크라프트를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어깨까지 닿는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은 여성화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림 15>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수가 놓아진 붉은색의 푸르푸앵

<표 4> 메트로 섹슈얼 영화 포스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페미닌 이미지			
 <그림 9> 아이다호(1991)	 <그림 10> 에드 우드(1994)	 <그림 11> 바닐라 스카이(2001)	 <그림 12> 그놈은 멋있었다(2004)
환상적 이미지		회귀적 이미지	
 <그림 13> 반지의 제왕-반지원정대(2001)	 <그림 14> 찰리와 초콜릿 공장(2005)	 <그림 15> 셰익스피어 인 러브(1999)	 <그림 16> 연인(2004)

과 그 위로 보이는 러플에서 한껏 멋을 낸 메트로 섹슈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환상적 이미지에서 또한 양성성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주로 긴 블론드 머리와 턱선까지 닿는 단발머리, 그리고 로맨틱한 상의와 장식된 베스트에서 드러나고 있다.<그림 13> 이시기의 페미닌 이미지에서는 마초적 남성과 확연히 구분되는 꽃미남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림 11>, 의복에서는 붉은색 벨벳 정장이라던가, 레이스 드레스 셔츠, 또는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바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분기의 메트로 섹슈얼은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림 12>과 같이 커다란 꽃 모티브가 있는 하얀 남방과 목걸이, 팔찌 등을 여러 개를 겹쳐 사용하고 있었다. 페미닌 이미지에서의 양성성은 주로 꽃무늬 셔츠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시기의 회귀적 로맨틱시즘은 레트로 사극의 유행으로 인한 사극 판타지 영화가 등장함에 따라 <그림 16>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적 로맨틱시즘의 남성은 긴 생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도록 둔 모습과 갑옷의 비늘이 꽃잎 모양으로 나타난 이미지로 갑옷의 남성적인 느낌과 꽃무늬 여성적이 느낌이 조화되어 양성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림 16>은 기존의 단색 무복이 아닌 파란색의 천에 보라색 꽃과 하얀색 줄기 무늬가 나타나고 있었다. 환상적 이미지에서도 양성적인

모습이 증가하였는데, <그림 14>와 같이 귀를 가린 단발머리와 하얀 스트라이프 무늬의 자주색 벨벳 재킷과 페이스리 무늬의 셔츠와 긴 레게 머리, 풍성한 해적 셔츠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깊게 파인 V넥 셔츠와 슬림 앤 피트로 나타난 청바지 등에서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가 관찰되었다. 이렇듯 메트로 섹슈얼의 남성 패션 스타일은 3·4분기에 오면서 여성의상에서 보이던 다양한 색상, 꽃 프린트, 여성적 피트 실루엣, 헤어스타일 등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어, 꽃미남 스타일이 유행하고 양성성은 주요한 남성패션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음을 영화의상에도 볼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1990~2006년까지의 영화 포스터를 통해 크로스 섹슈얼로서 남성의 여성화 경향을 남성의 여성성과 양성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1990~1993년을 1분기, 1994~1997년을 2분기, 1998~2001년을 3분기, 2002~2006년을 4분기로 나누어 각 남성 이미지의 변화 추이와 그에 따른 패션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영화 포스터의 전반적인 젠더의 분류를 통하여 1~4분기 남성의 여성성과 양성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남성의 여성성에서 쾌락주의의 영향으로 꾸준히 일탈과 유희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였으나 2분기에서는 동성애자들의 크로스 드레싱이 서양의 드랙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의상의 기괴해 보이던 서양의 드랙이 4분기에는 다소 소박한 이미지로 변화했으며, 1·2·4분기에 다문화주의의 영향으로 동양의 드랙이 나타났고, 4분기에는 한국의 드랙이 나타나다. 1~2분기의 독특하고 과장된 의상과 화장이 3~4분기에는 자연스러운 화장과 일상적인 의상으로 남성의 여성성이 사회에 유리되지 않은 느낌으로 변화하였다.

양성성 이미지는 1분기에 동성애자들의 패션으로 나타났으나 2분기에서부터 일반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3분기에서는 세기말의 우울로 낭만주의의 회귀적 이미지가 양성성에 영향을 주었고, 판타지의 흥행이 영화에 영향을 미쳐 요정이나 외계인등의 모습으로 남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남성의 양성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패션에서의 복고풍이나 사이버 룩의 확산과 영화의상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4분기에는 새천년의 밝아진 사회가 영화에서 쾌락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과 남성관계가 코믹하게 표현되었고, 남성은 메트로 섹슈얼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이를 통하여 꽃미남 스타일의 유행과 양성성이 주요한 남성 패션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음을 영화의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대의 분위기와 이슈에 따라 젠더 안에서도 여러 이미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패션의 표현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해진 남성 젠더 정체성과 고정관념에서 해방되어 유동적인 남성 이미지가 영화포스터에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화 포스터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영화포스터 내에 전신 스타일의 자료가 미흡하여서 패션의 변화를 살피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최근 각 영화마다 다양한 영화 포스터의 제작으로 다양한 남성 이미지가 강조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영화 포스터 선택에 있어서 주관적인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영화 포스터에서 보이는 이미지상의 단면적인 분류가 아닌, 영화의 내러티브 안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장면을 캡처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실증적인 패션 스타일을 파악하고 영화의상과 패션 트렌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패션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혜원 (1991).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 권택영 (1998). 성과 권력, 서울: 문예출판사.
- 김동중, 김종현, 정찬중 (2000). 섹슈얼리티로 이미지 읽기, 인간사랑.
- 남후선, 김순영 (2005). 영화로 보는 복식사, 서울: 경춘사.
- 문경자, 신은영 공역 (1997). 성의 역사: 제 2권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사.
- 백선기 (2007).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경기 (1994).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주제와 장르로 살펴본 영화 세계, 서울: 삼호미디어.
- 이상률 (1993). 스타, 서울: 문예출판사.
- 이형광 (2003). 우리시대의 문화코드, 영상예술, 신서원.
- 이효일 (1983). 영화포스터 반세기, 계간미술 통권 26권, 중앙일보.
- Samuel Huntington 이희재역 (1998). 문화의 충돌, 김영사.
- Graeme Turner 임재철 역 (1994). 대중영화의 이해, 서울: 한나래.
- Alexandra G. Kaplan, John P. Bean(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88).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Constantino, Maria (1991). History of a Decade 1930, London, Batsford.
- Ehalt, H. Zum (1985) Spannungsfeld biologischer und sozialer Bedingen und zur Kritik biologistischer Ansatz, in H.Ehalt (Hrsg.) Zwischen Natur und Kultur. Zur Kritik biologischer ansatz, Wien.
- Elizabeth Wilson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 Francette Facteau (1994). *The Symptoms of Beauty*, Reaktion Books, London.
- Gini Stephens Frings (1982).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June Singer(1976).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Webster's New Colligate Dictionary (1973). Springfield, Massachusetts, U.S.A: G.&C. Merriam Company.

•참고문헌

- 강혜원 (1991).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 권택영 (1998). *성과 권력*, 서울: 문예출판사.
- 김동중, 김종현, 정찬중 (2000). *섹슈얼리티로 이미지 읽기*, 인간사랑.
- 남후선, 김순영 (2005). *영화로 보는 복식사*, 서울: 경춘사.
- 문경자, 신은영 공역 (1997). *성의 역사: 제 2권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사.
- 백선기 (2007).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경기 (1994).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주제와 장르로 살펴본 영화 세계*, 서울: 삼호미디어.
- 이형광 (2003). *우리시대의 문화코드*, 영상예술, 신서원.
- 이효일 (1983). *영화포스터 반세기*, 계간미술 통권 26권, 중앙일보.
- Graeme Turner 임재철 역 (1994). *대중영화의 이해*, 서울: 한나래.
- Alexandra G. Kaplan, John P. Bean(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88).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Ehalt, H. Zum (1985) *Spannungsfeld biologischer und sozialer Bedingen und zur Kritik biologistischer Ansatz*, in H.Ehalt (Hrsg.) *Zwischen Natur und Kultur. Zur Kritik biologischer ansatz*, Wien.
- Elizabeth Wilson (1985).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 Gini Stephens Frings (1982).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June Singer(1976).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 Webster's New Colligate Dictionary (1973). Springfield, Massachusetts, U.S.A : G.&C. Merriam Company.
-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월호.
- 김문영 (2002). *영화 여주인공의 의복 이미지에 나타난 전문 직업 여성의 복장 유형의 변화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 40권, 11호.

- 김복희·남윤숙 (2006). 영화<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의상의 미적 특성, 한국복식학회, Vol. 56, No. 9.
- 김이은 (1994).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숙 (2003). 영화의상 「매트릭스2 -리로드드」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션 이미지 연구, 한국복식학회, Vol. 53, No. 7.
- 김혜영, 이신영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90년대 패션 경향을 중심으로- 생활과학 Vol. 4, No. 1.
- 김희정 (2007). TV광고에 나타난 성역할 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Vol. 21, No. 4.
- 권수현 (2005). 팜프 파탈의 도상 연구 -영화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영화학회, Vol. 27, No. 1.
- 이귀옥, 이원정 (2004). 남성성의 다중화와 여성화: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남성 잡지 광고 내용 분석, 광고학연구, Vol. 15, No. 5.
- 이민선 (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 이민선 (2001). 가부장제도,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한국의류학회지, Vol. 25, No. 2.
- 이정희 (1997). 영화예술에 나타난 의상이 유행에 미친 영향 -Edith Head의 영화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2월호.
- 이화영, 이순영 (2002). 역할에 따른 영화의상 분석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요 여배우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Vol. 10, No. 6.
- 이현구 (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세희, 양숙희 (2002). 1930-1990년대 영화 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I) -남성성(masculinity), 여성성 (Feminity)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 40, No. 5.
- 정세희 (2002). 1930-1990년대 영화 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II), 대한가정학회지, 40권, 6호.
- 조은영, 유태순 (1997). 영화의상을 중심으로 한 대중 패션의 분석, 한국복식학회, 2월호.
-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3월호.
- 최경희, 김민자 (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II), 한국복식학회, Vol. 57, No. 4.
- 최나리 (2006).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지영, 장순석 (2001). 국내 영화포스터의 디자인 현황 및 표현기법 분석에 관한 연구, 시각 디자인학연구, Vol. 8, No. 1.

황지영 (2001).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한국영화포스터 디자인의 표현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 논문.

홍준기 (2004). 성차이, 여성성, 남근기 논쟁-여자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프로이트와 존스, 비평과 이론, 제 9권, 4호.

Braun, Christina von (2002). 여성학 논집, 19호.

김범석, 김윤중 (2006.01.07). 외모만 여성스럽게 크로스 섹슈얼이 뜬다. [www.donga.com](http://www.donga.com) 2007년 11월 14일 검색.

김선우, 신선미 (2007.08.25). 내남자도 '최한결 처럼'. [www.donga.com](http://www.donga.com) 2007년 11월 23일 검색. <http://blog.naver.com/lenyjo?Redirect=Log&logNo=110017373376>

•사진자료

네이버 영화정보 <http://movie.naver.com/>

엠포스 영화정보 <http://movie.empas.com/>

씨네 서울 <http://www.cineseoul.com/>

씨네 21 <http://www.cine21.com/Index/index.html>

씨네통 <http://cinetong.com/>